

광주시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경제 거점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남구·광산구·한국서부발전과 MOU 수소차·수소충전소 등 선도...광주 전력사용량 15~18% 생산

광주시에 차세대 신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계획대로 건립되면 광주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등 한국사회가 미래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발전소에서 광주 지역 전력사용량의 15~18%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25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해 남구, 광산구,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25일 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료전지발전소는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7160억원씩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200MW 발전소가 운영되면 연간 157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2018년 기준 광주시 총 전력소비량인 8773GWh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 전체 전력사용량의 15~18%에 해당된다.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해 광주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과 R&D과제 추진 등 사업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남구와 광산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사업개발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사업개발 타당성 검토와 EPC(설계·구매·건설 일괄) 수행 등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주관하게 된다.

발전소 건립부지는 지자체가 개발 분야 중인 산업단지 내 부지나 국·공유재산 유휴 부지를 우선 검토해 사업타당성조사, 주민수용성, 안전성으로 연계, 환경성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선정할 예정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미세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전혀 없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8분의 1 수준으로 고효율 친환경 설비다. 전기와 열을 생산

하는 연료전지는 미래 에너지와 공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대안으로 도심내 분산 에너지원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소형 KW급(1~5KW)의 건물·주택용과 MW급 대형 발전 사업 용이 있으며, 2018년 기준 건물·주택용은 3167개소에 7MW, 발전 사업용은 서울, 부산, 분당 등 41개소에 307MW가 가동 중에 있고 현재 7개소 81MW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특히 설치면적 이 태양광의 50분의 1, 출력의 100분의 1로 작고, 소음은 35m거리에서 55dB로 공기청정기 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심 내 발

전시설로 가장 적합하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친환경설비로 타 발전설비에 비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건설(2년)과 운영기간(20년) 동안 건설인력 및 운영에 6000여명의 인력이 필요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전망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기반센터 발전기금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기간 중 1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해마다 8000만원의 기본지원금을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협약식'에 참석해 서명 후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주민 주도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농성1동·사직동·백운광장 8억 투입

광주시는 농성1동, 사직동, 백운광장 등 3곳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농성1동, 사직동, 백운광장 등 3곳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을 투입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한다. 사업별 예산은 1억~4억원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시설사업(H/W)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역량강화(S/W)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서구 농성1동 '공동체마을정원 활짝 피다 프로젝트'는 꽃과 정원이라는 개념을 결합해 브랜드화하고 정원 조성, 주민역량 강화대학 운영 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남구 사직동은 '사직에인(社職愛人)-마을콘텐츠클러스터를 통한 주민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직동 들레길 주변 선비마을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활용해 주민 경제조직 육성 및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남구 101' 도시, JEAN다리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민과 청년들이 함께 협의체 운영, 아이디어집 발간 등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광주시 임찬혁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집중된 도시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량을 높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커나가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에 로봇 플랫폼·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로봇산업협회 창립총회

광주에 로봇 플랫폼과 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등 광주지역 로봇 산업이 체계화할 전망이다.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광주로봇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로봇산업 발전과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 공동 사업 추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에 있는 40여개 로봇 전문 기업과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내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로봇산업협회는 로봇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부품 및 금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 등 로봇 관련 전후방산업 기업들이 포함된 기업 간 의사소통에도 중추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로봇산업협회는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플랫폼 개발사업, 로봇 기업 클러스터 조성, 국내외 로봇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로봇 전문인력 양성, 회원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수행, 기술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된 (주)드림씨엔지 송창규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의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국내 로봇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지역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박람회 연다

순천·여수·나주·목포서

경력단절 및 청년층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4월 1일 순천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열린다.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활동의 하나로, 지난 2012년부터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열린 4차례의 박람회에는 모두 6353명의 여성 구직자들이 참여해 758명(상용직 557명·계약직 201명)의 취업이 이뤄지는 성과를 올렸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올해는 순천(4월 1일), 여수(5월 29일), 나주(10월 16일), 목포(10월 31일)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2억 8000만원을 들여 구인업체 참여를 3%이상 높이고 상용직 비율도 75%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박람회에는 ▲직업디자인관 ▲직종별 채용관 ▲직업·창업 체험관 ▲여성친화관 ▲취업컨설팅관 등의 부스가 마련되고 다양한 창업정보와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직종이 소개될 예정이다.

2019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에는 구직 중인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061-283-7535), 여수인력개발센터(061-641-0050), 순천인력개발센터(061-744-9704), 나주새로일하기센터(061-333-2060)로 하면 된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해 주세요"

해남민들 도민과 대화서 김영록 전남지사에 건의

"연평균기온 14도의 해양성 난대기후대에 속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연구 최적지입니다. 전남도가 유치를 추진중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국립예곡 연구개발원(국립예곡연구소)을 전남도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해남지역민들은 25일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해남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국립예곡연구소의 경우 환경 연구와 관광이 함께 이뤄지는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국비 지원을 요청

하고 있는 핵심 현안 중 하나다. 행사가 열린 해남군민회관 인근 도로 곳곳에는 지역 농민단체 명의의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김 지사는 즉답을 피했지만 관련 적지임을 유념하겠다는 취지로 답변, 지역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겼다.

김 지사는 앞서 인사말에서 "해남군민들의 지지로 이곳 지역에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한 만큼 해남은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땅끝해남의 브랜드 잠재력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군의 주요사업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평화당-서구청 정책협의회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김명진)는 25일 오전 서구청(구청장 서대석)과 조찬을 겸한 정책 협의를 갖고 2019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2월 3일 1차에 이

어 2차로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민주평화당에서 천정배, 김명진 위원장 비롯 김옥수,김수영 서구의원, 지역외 관계자 등 9명과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 부구청장, 실국장 8명이 참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봄에가기 2019 딱 좋은!

여행백서

무안공항 출발 모여라!

▶▶▶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 혜택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예약시 광주일보 구독 고객임을 알려주세요.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중국/홍콩/러시아	일본	동남아/대만	하나팩
<p>신규취항</p> <p>홍콩/마카오 677,000원~ 홍콩/마카오 4일, 5일</p> <p>신규취항</p> <p>블라디보스톡 509,000원~ 블라디보스톡 4일, 5일</p>	<p>신규취항</p> <p>도쿄 549,000원~ 도쿄 4일</p> <p>신규취항</p> <p>오사카 884,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p>	<p>보라카이 539,000원~ 보라카이 4일, 5일, 라카멜라</p> <p>세부 497,000원~ 세부 5일, 6일, 슬레아리조트</p> <p>다낭 733,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p>	
<p>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자각 4일, 5일</p> <p>상해/장가계 1,24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p>	<p>기타큐슈 666,000원~ 기타큐슈/후쿠오카 3일, 4일</p> <p>모이타 737,000원~ 모이타/후쿠오카 3일, 4일</p>	<p>대만 704,000원~ 대만/지우펀/야류 4일</p> <p>방콕 621,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p> <p>코타키나발루 725,000원~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시내 존콕</p>	

▶▶▶ 연설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은 도착비자요금이 상품가에 별도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속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 있음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천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한일 | ▶▶▶ 여행 유의 | ▶▶▶ 여행 자체 | ▶▶▶ 철수 권고 | ▶▶▶ 여행 금지